

# OBLIVOIR 클래스 소개

Progress

2006년 9월

## 요 약

OBLIVOIR 클래스는 2006년 3월 말경, KTUG 디렉터인 도은이아빠님이 발표한 클래스입니다. 기존 L<sup>A</sup>T<sub>E</sub>X의 기본 클래스 중 하나인 article 클래스의 형식에 memoir의 장점을 그대로 살렸으며, 특히 이제까지 개발된 한글 구현 테크닉 중 좋은 것을 대부분 내재하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T<sub>E</sub>X 유저들의 수준 고하에 관계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차 례

1 memoir 클래스 . . . . .	1
2 가볍게, 그러나 더 강하게... OBLIVOIR의 탄생 . . . . .	2
3 많이 씁시다! . . . . .	3
4 맺으며 . . . . .	5

## 1 memoir 클래스

어느 순간 출판에 써먹기 좋은 memoir 클래스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KTUG에서는 작년 초부터 도은이아빠님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memoir 클래스에 안정적인 한글 환경을 도입한 memhanguk-ucs 패키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즉, memoir 클래스에 Hanguk-ucs를 도입한 것이죠. 이는 많은 T<sub>E</sub>X 사용자들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Peter Wilson씨가 발표한 memoir는 출판에 적합한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L<sup>A</sup>T<sub>E</sub>X의 기본 클래스인 article, report나 book 클래스를 사용하던 전세계의 많은 사용자들이, T<sub>E</sub>X뉴스그룹이나 각 LUG(local user group)에서 호소했던 애로점과 개선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패키지를 따로

없지 않고 \documentclass에 memoir 클래스 하나만 지정하더라도 매력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의 장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memoir 매뉴얼을 보면 됩니다. 매뉴얼 또한 도은이아빠님이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으니 해당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보면 됩니다. 편집자인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만 늘어놓는다면

- 본문용 글자 크기를 9, 10, 11, 12, 14, 17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것
- 출판에서 종종 등장하는 짝수쪽 백면(empty page)에 면주(running head)와 쪽 번호(folio)를 식자하지 않는 것
- 판면과 판형을 설정할 때,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 어느 한쪽만을 설정하고 나머지 길이는 그에 대한 비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한편 이 클래스의 단점을 알기 위해서는 역시 매뉴얼을 읽어야합니다. 370쪽에 달하는 매뉴얼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많은 기능을 언제 숙지한다 말인가’하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희의 탄식이겠지요?) 책을 만드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패키지임에는 틀림없지만 분량이 적은 문서나 가벼운 문서를 만들 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매번 다음과 같이 판형, 판면, 좌우상하 여백 등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야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
\settrimmedsize{11in}{210mm}{*}
\setlength{\trimtop}{0pt}
\setlength{\trimedge}{\stockwidth}
\addtolength{\trimedge}{-\paperwidth}
\settypeblocksize{7.75in}{33pc}{*}
\setulmargins{4cm}{*}{*}
\setlrmargins{1.25in}{*}{*}
\setmarginnotes{17pt}{51pt}{\onelineskip}
\setheadfoot{\onelineskip}{2\onelineskip}
\setheaderspaces{*}{2\onelineskip}{*}
\checkandfixthelayout
```

그렇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클래스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 2 가볍게, 그러나 더 강하게... Oblivoir의 탄생

앞에서 (역지로) 단점으로 지적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도은이아빠님이 2006년 3월 말경, OBLIVOIR 클래스를 발표합니다. 이 클래스는 가볍기도 하고, 예

전에 논문 발표를 위해 자주 사용하던 article 클래스의 문법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좋은 점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 내부적으로 memoir를 탑재하고 있어 OBLIVOIR 클래스가 등장하기 전 1년 동안 공들여 익혀놓은 memoir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 한글 pdf의 텍스트 검색과 추출은 사실상 L<sup>A</sup>T<sub>E</sub>X과 DVIPDFMx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만 가능했던 것이 PDFL<sup>A</sup>T<sub>E</sub>X으로도 가능해졌다는 것(단 사용자가 글꼴 설정 부분을 기본 설정으로 두었을 때)
- 국판, 신국판, 사륙배판에 해당하는 종이크기와 여백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스타일이 제공되는 것
- 출판에서 본문 글꼴 크기로 많이 사용하는 10.5포인트 옵션을 추가한 점 등입니다. 특히 마지막 10.5 포인트 옵션은 우리나라 출판 편집에서 환영 받을 만한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 \*

OBLIVOIR이 정말 가벼운 지에 대해서는 이 문서의 preamble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대체하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usepackage`로 불러온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예전에 article에서 10.5 포인트를 지정한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
\documentclass[a4paper, 10.5pt]{fakearticle}

%클래스, 패키지, 명령어, 유틸리티 등의
%글꼴을 조금씩 다르게 찍고자
%다음의 게으른 매크로를 정의함.
\newcommand\Ov{\textsc{FakeArticle}}
\newcommand\cls[1]{\textsf{#1}}
\newcommand\pkg[1]{\texttt{#1}}
\newcommand\cmd[1]{\texttt{\textbackslash#1}}
\newcommand\util[1]{\textsc{#1}}

\author{Progress}
\title{\Ov\ 클래스 소개}
\date{2006년 9월}
```

### 3 많이 씹시다!

CTAN이나 T<sub>E</sub>X 뉴스그룹에는 다양한 용도에 적용할 수 있는 수 많은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클래스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유는 패키지는 해당 목적만 충족하면 그만인데 반해, 클래스는 클래스 고유의 타이포그래피와 양식,

패키지를 능가하는 특징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클래스가 그만큼 만들기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KTUG에서 karnesrep 클래스와 memhangul-ucs 패키지에 이어 OBLIVOIR 같은 클래스가 줄줄이 발표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KTUG에서 L<sup>A</sup>T<sub>E</sub>X등을 이용한 한글 조판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발전상은 다른 소프트웨어와는 구분되는 무엇이 있습니다. 출판에 적합한 폰트를 개발·공개하였고, 단순히 한글을 보이게 하는 수준이 아닌 타이포그래피를 반영한 한글 식자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사실상 인쇄전 조판의 최종 출력물인 pdf를 얻어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에 가까운 일이라고나 할까요?

\* \* \*

여담을 조금 하겠습니다.

한글이 반포된 지 올해 560주년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편리한 문자 인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 각국에서 문맹퇴치사업에 가장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 매년 시상하는 문맹퇴치 공로상의 이름이 ‘세종대왕상’일 정도니까요.

아울러 우리나라는 목판이나 금속활자 등을 이용한 인쇄 분야에 고유한 전통과 독창적인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 판본들을 살펴보면 요즘의 기술로 저것을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생각에 앞서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하부터 DTP가 빠르게 전파되는 1990년대까지 변변한 한글 글꼴이 별로 없었고, 더더욱 국내 기술로 만든 한글 DTP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당시는 사진 식자기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사진 식자용 글꼴도 일본에서 개발하여 오히려 한국으로 수입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의 인쇄·출판 산업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도 한국은 주변국으로 대접받을 만큼 고도의 성장을 이룩해왔습니다. 한국은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인쇄·출판 분야에서 발전을 주도해왔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출판 대국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글과 우리말을 사랑하고 우리 책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KTUG에서는 우리 옛글을 구현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중세 고어를 포함하여 유니코드 11,172자를 모두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글을 입력하는 방법이 또 하나 늘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KTUG의 사랑과 노력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여담을 늘어났습니다.

\* \* \*

한글로 된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도구는 아래아한글도 있고 MS 워드도 있고 INDESIGN도 있고 MLAYOUT도 있고 QUARKXPRESS도 있고, 여하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저 여러분들께서 손에 익고 쉬운 것을 찾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L<sup>A</sup>T<sub>E</sub>X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제 막 L<sup>A</sup>T<sub>E</sub>X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시는 중일 겁니다. L<sup>A</sup>T<sub>E</sub>X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먼저 이 OBLIVOIR 클래스를 사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4 맺으며

부족한 사람이 OBLIVOIR을 홍보하는 글을 쓰느라고 우왕좌왕하는 통에 저자에게 누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서 KC 2006을 설치하고 OBLIVOIR을 쉽게 사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쉽게 쓴다고 썼지만,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용어가 있다면 다음 KTUG 위키에 접속하셔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faq.ktug.or.kr/faq/>